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김 중 성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이 대담 시리즈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서관계 안팎의 관심을 높이고 현단계 학교도서관 운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려는 취지에서 시도된 것이다. 과거 학교도서관 운동을 주도하였거나 오랫동안 학교도서관 현장을 지켜온 인물들을 찾아 그들의 경험과 의식 속에 쌓여 있는 역사를 끌어내어 오늘을 비추어 보고 내일을 전망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번 대담에서 만난 사람은 전교조 5,6대 위원장을 역임한 정해숙 선생이다. 선생은 1966년 전남여고에서 사서교사로 첫 발을 내디딘 후 목포여고, 광주농고 등을 거쳐 1989년 해직 당할 때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학교도서관 운동에 크게 기여한 분이다. 10년간의 해직 교사 생활을 마감하고 1998년 9월 1일부로 광주 기계공고에 사서교사로 복직하여 얼마 남지 않은 교직 생활을 사서교사로서 봉사하고 계신다. 이 대담을 통하여 선생께서는 학교도서관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신다.

대담 일시: 1998년 9월 24일 오후 9시-11시 30분

대담 장소: 경주 교육문화회관 커피숍

김중성: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도서관 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사서교사로 활동하셨다는 사실을 접하고 한 번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전교조 위원장을 지내신 선생님의 독특한 이력 때문인지 학교도서관 운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선생님 경험을 토대로 학교도서관 운동뿐만 아니라 참교육 운동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숙: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학교 현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복직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해 생각한 것도 별로 없구요. 사실 저는 학교도서관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서교사로 복직하게 된 것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중성: 처음에 학교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교직에 나가실 때는 사서교사로 나가시지 않으셨을 텐데요. 어떤 계기로 학교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정해숙: 원래 제 교과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그때 저는 이십대인데 수학을 담당하면서 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담임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이 납부금을 거두어야 하는데, 애들이 형편이 어려워져 잘 안 내니까 납부금 안 내는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쫓아내야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잡부금이 많았어요. 그런 것을 담임이 거두어야 되고 해서 괴로웠지요. 교사로서 담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때로서는 돈을 걷는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다른 학급과 경쟁을 시키는 것이 괴로웠어요. 직원 회의 때 교장 교감 선생님이 납부금 성적을 발표하고 부진한 학급의 담임을 질책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싫었어요. 그래서 담임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나 생각했어요. 그러던 차에 누가 도서관을 담당하면 담임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으니까 쉽게 결정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문교부 주최로 이화여대 도서관학과에서 실시한 사서교사 강습에 참여했습니다. 그때가 1964년도입니다.

김종성: 그럼 이화여대에서 개최한 학교도서관 강습에 참여하게 된 것이 본격적으로 학교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겠군요.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강습 기간을 통해 사서교사가 되신 거군요.

정해숙: 책을 다루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 강습 기간 동안에 내가 크게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도서관을 견학하고 받은 감동입니다. 당시 어떤 분이 사서교사였는지 지금은 기억이 없어요. 수강생들이 단체로 견학을 가서 이야기로만 듣던 개가식 운영을 직접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없었는데 인천 제물포고등학교에서는 그 당시에 사서교사를 네 명 정도 채용해서 도서관을 아주 바람직하게 운

영하고 있었어요. 1층은 완전 개가제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2층은 시청각실, 3층은 자습실로 운영하면서 밤 늦게 까지 모든 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때 교장선생님이 우리한테 브리핑을 하셨는데, 완전 개가제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도서관 이용 효과를 높이면서 분실도서가 생각보다는 적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무감독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답니다. 도서관을 개가제로 운영한 경험에서 확신을 갖고, 월말 고사건 기말 고사건 시험을 무감독으로 실시한 겁니다. 교사는 시험지를 모두 나누어 주고 교무실에 가서 자기 볼 일을 보면 학생들끼리 시험을 치는 거지요. 시험이 끝나기 5분 전에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서 시험지를 걷어 가는 식입니다. 이렇게 무감독 시험을 실시한 동기가 개가식 운영이 성공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감독 고사를 실시했는데도 거기에서 낙제생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 학년에 5, 6명 낙제생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제생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질문을 했죠. 교장선생님이 낙제생을 교장실로 불렀답니다. '너희들은 감독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든지 컨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애들이 고개 숙인 채 '선생님은 안계셔도 양심상 도저히 보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대로 쓰다 보니까 이런 점수를 얻었다고 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교장선생님이 '너희들이 진짜 학생이다.' '이 학교가 하는 교육이 양심 교육인데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올바른 양심을 가진 훌륭한 학생들이다' 라고 칭찬을 했답니다. 그리고 재시험을 치게 해서 애들을 유급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평

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십대 후반이었는데, 이게 진짜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도서관 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양심 교육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학교도서관을 잘 선택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두 번 강습을 받고 1966년도에 전남여고 사서교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때부터는 담임은 말지 않고 수업만 조금 하면서 도서관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서교사는 전교생과 전교직원을 상대로 자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담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서관은 완전 개가게로 운영했어요. 제물포 고등학교 도서관 운영 사례가 너무 좋기도 하고 내 소신껏 하고 싶기도 해서 완전 개가식으로 했어요. 전남여고 도서관이 상당히 컸어요. 넓은 열람실에 서가를 배치하고 분류별로 책을 배치해 두고 현관에 소지품 보관함을 만들어 두어 소지품은 넣어 두고 필요한 책이나 노트만 들고 들어가 공부하게 했어요. 마음대로 책을 볼 수 있게 한 거지요. 그런데 역시 분실 도서는 좀 나오더군요. 그래도 관리자로서 그게 염려가 된다는지 하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서가 앞을 한 바퀴 도는데 그 시간이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통해서 옛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도 되고 과학자, 철학자, 문학가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서가를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1966년에 사서교사로 발령 받아서 1989년에 해직되었으니까 23년간 사서교사로 근무했죠. 그리고 순수한 수학교사로만 근무한 것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5년간입니다.

김종성: 선생님께서 사서교사로 일하시기 시

작한 시점은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이 어느 정도 붐을 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광주 전남 지역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계셨던 전남여고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정해숙: 그러니까 그때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전남여고가 가장 왕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남여고에서는 개가식으로 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만 근무하는 직원을 네 명이나 두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삼십대 초였는데 그때부터 십년 동안 전남여고에서 근무를 하면서 남녀 직원을 네 명 데리고 일을 했어요. 전남여고는 당시 전남에서는 가장 일류 학교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우 우수했고 학구열이 높았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 9시까지 도서관을 개관합니다. 직원들이 교대로 운영을 하고 나는 경우에 따라 밤 늦게 까지 같이 있기도 하고 또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직원들은 사서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인데 도서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채용을 한 거죠. 1960년대 후반기에 고등학교 평준화가 되기 이전이고 중학교 입학 시험이 있을 때인데 그때가 가장 번창기였어요. 그때 전남여고와 전남여중이 같이 있었는데, 큰 교무실에 한쪽은 중학교 선생님들, 다른 한쪽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교감, 고등학교 교감이 나란히 앉아 있고, 그 양 교감 바로 맞은 편에 교무실에서 가장 한 가운데에 상담교사와 사서교사 자리를 두었어요. 사서교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한 명 뿐이니까 한 가운데 앉혀 둔 겁니다. 상담교사와 사서교사에게 당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비중을 두었는지 알 수가 있죠.

김종성: 지금 학교도서관은 시험 공부하고 자습하는 공간으로 전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 당

시 도서관 이용 패턴은 어떠했습니까? 학교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되었습니까?

정해숙: 그때도 좀 그런 점은 있었지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균형 있게 활용되었죠. 대학입시 준비 때문에 그때도 좀 그랬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시다. 가령 신입생들에게는 반드시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도서관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졸업한 후에도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도서관 이용 교육을 해 주어서 자기들이 마음껏 도서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게 참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과거에는 광주가 상당히 활발했었는데 이번에 복직을 해 보니까 완전히 후퇴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서교사가 정년퇴임을 한다든지 명예퇴임을 하게 되면 그 학교의 사서교사 티오를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서교사 수가 많이 줄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과거에는 교육감이 발령을 했는데 지금은 교장이 발령을 합니다. 사서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자격증 없는 교사에게 도서관 담당교사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문 닫아 놓고 있는 겁니다.

김종성: 선생님께서는 1989년까지 사서교사로 근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부터 학교도서관 운동이 크게 침체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에는 이미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걸로 아는데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선생님께서 계시던 광주 전남 지역은 어떠했습니까?

정해숙: 그때 보니까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는 상당히 침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동안

광주 전남은 굉장히 활발했어요. 다른 지방은 사서교사 발령도 잘 나지 않고 교련교사를 사서교사로 발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복직해서 보니까 서울이 상당히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서울이 활발해야 지역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리고 광주 지역은 많이 쇠퇴하고 있어요. 주로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복직하니까 사서교사 선생님들이 환영하는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 자리에서 정해숙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학교도서관 붐을 좀 일으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규 교사로 채용되어 왔으니까 오히려 선배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웃으면서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학교도서관이 이렇게 침체된 것에 대해서 첫째는 사서교사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서교사들이 도서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서관 자료를 제대로 활용해 왔는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교육 행정 당국이나 교장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쇠퇴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육청 당국이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 학교도서관이 쇠퇴한다고 교육청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되고 사서교사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교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지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책이 있어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오면 저쪽에 가서 찾아보라고 하거든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록 카드라도 만들어 뒤서 이런 책은 어디 어디에 있다고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 없이 저쪽에 가서 찾아 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교사나 학생들이 '찾아도 없네요' 하면, '아 그럼 없는 모양입니다.' 하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료가 도서관에 있는데도 사장시켜 버리고 이용자들에게는 도서관에 오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사서교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김종성: 초기 학교도서관 운동은 자생적으로 일어난 걸로 압니다. 그리고 1960년대까지도 사서교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 되었는데, 결국 사서교사들의 에너지가 소멸해 가는 것이 학교도서관 운동이 침체한 첫째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해숙: 학교도서관 운동이 쇠퇴한 건 근본적으로 교육 정책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교육이 완전히 궤도에서 이탈해 있잖아요. 완전히 입시 경쟁 교육만 학교에서 시키지 않습니까. 자율학습이다, 보충수업이다 하면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는다든지 자기에게 부족한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임 선생이 쪽 돌아보다가 학생이 책을 읽고 있으면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책 읽고 있어!' 라고 야단치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 제도가 학생만 경쟁을 시키는게 아니라 교사도 경쟁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다른 학급 보다 자기 학급 성적이 나쁘면 그 교사가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자기 학급 애들이 좋은 성적 내고 진학 많이 하면 자기 점수가 좋아져 진급하는데 보탬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고서와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 공부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교사 자신들부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나라의 교육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전교조도 이런 풍토를 좀 고쳐보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완전히 병신 만드는 교육도 문제입니다. 담임은 담임대로, 교과 담임은 교과 담임대로 '이런 성적 가지고 대학 진학 못한다. 이렇게 공부 해 가지고 공장에 취직할래?, 공순이 될래?, 공돌이 될래?' 합니다. 또 집에 가면 부모들이 '대학 못 가면 이 사회에서 어디 설자리도 없다. 이런 성적 가지고 네가 갈 곳은 땅이나 파 먹고 사는 길 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려면 공부해라. 이러거든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공부 못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노동은 천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이렇게 천시하는 나라가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우리 전교조 교사들이 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린 거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로지 입시경쟁 교육, 서울대학 집어 넣는 것이 최고인 학교 교육이 우리 교육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불구자만 만드는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이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학교도서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공부 안하고 무슨 짓이냐고 나무라고, 집에서도 책 볼 수 없게 하잖아요. 이런 교육 풍토 속에서 학교도서관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도서관 안에서 보면 사서교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제도 전체의 모순 즉, 입시 경쟁 교육이 문제라는 겁니다. 학생과 학생을 경쟁 시키고, 교사와 교사를 경쟁 시키는 이런 교육 제도에서 학교는 경쟁터지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는 현장이 아니에

요. 오죽하면 우리가 참교육을 주장했겠습니까. 학교 현장에 거짓 교육이 너무나 난무하니까 참교육을 하자고 한 거고, 노동을 천시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니까 노동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자고 한 겁니다.

김종성: 그러면 학교도서관 운동이 침체하게 된 근본 원인을 학교도서관 운동력 내부의 문제라기 보다 우리 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왜곡이라는 외부 요인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하겠군요.

정해숙: 그렇죠. 교육에 대한 전 국민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잘못돼 있어요. 그건 우리 사회의 문화, 정치적인 모든 것과 연관돼 있는데,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대학 나오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돈 벌고 출세하면 된다는 식이죠. 한마디로 군사독재 문화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너무 너무 왜곡 시켜 버렸어요. 1970년대 이후 유신 중반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그러나 유신 중반 이후부터 심해졌죠. 책을 통해서 이상을 심어가고 가꾸어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총칼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권력 잡으면 되듯이 남을 못쓰게 만들더라도 내가 돈 벌면 된다는 식이죠. 이런 경쟁 교육에 의해 국민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틀려 버렸어요. 학교도서관만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나라 전반적인 수준이 그래요. 어떤 분야라도 정상적인 분야가 없어요. 그러니 특별히 학교도서관만 정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도 없어요.

김종성: 전남여고에서 10년간 사서교사로 근무하시고 그 후에는 광주 지역의 학교를 옮겨 다니시면서 사서교사로 활동하셨군요. 어떤 학교들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정해숙: 공립학교에 있었으니까 여러 학교로 옮겨 다녔어요. 목포여고에도 1년 있었고,

1980년대 초에는 광주농고에도 있었어요. 쫓겨난 거죠. 우리 같이 의식이 좀 있으니까 옮길 때가 안 되었는데도 발령을 내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 무슨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 요주의 인물이 되니까 교육청에서 또는 보안사나 안기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갑자기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곤 했죠.

김종성: 선생님께서 한국 도서관상을 수상하신 것도 광주농고에 계실 때였지요. 그 당시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육 행정 당국의 인식이나 활동은 우호적이었습니까?

정해숙: 글썄요, 도서관상을 받은 것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광주농고에 있을 때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 행정 당국의 이해와 관심은 그때도 열악했지요. 가령 이런 정도였습니다. 학교도서관이 한창 일어날 때도 도서관 관리자인 사서교사에게 학교재산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해직되기 얼마 전부터는 보증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어서 대신 해주었는데, 사서교사가 학교 재산의 일부인 도서관을 책임 지고 있으니까 보증을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만일 재산 손실이 오게 되면 책임을 물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서교사들이 책을 안 빌려 줍니다. 애들은 책을 무척 읽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도 서고 문을 잠궈 두고 책을 안 빌려 줍니다. 그런데 학교에 장학 검열이 나온다 하면 그날은 서고를 활짝 열어 놓죠. 그런데 그날 장학 검열을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재미있어요. '아! 정말 책이 깨끗하게 잘 정리 되었네요' 하거든요. 그렇게 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장학 검열이지요. 이걸 완전히 로봇들이예요. 정말 왜 이렇게 학교 책이 깨끗합니까 하고 물어봐야죠. 그런데 거꾸로 하

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책들은 들어오자마자 대출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보게 되면 금방 닳아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서교사가 노란 종이 사다가 풀을 부치거든요. 그렇게 정성껏 하고 그랬는데, 장학사들이 '관리 잘해야 되겠네요.' 책이 이렇게 낡아서 되겠습니까? 하는거예요. 장학하는 사람의 평가 방법 자체가 틀린 거지요. 이용시키지 않고 문 잠궤 놔다가 장학 검열 온 날만 열어 보여주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었다고 하고, 활용을 잘 시킨 도서관을 보고는 좀 깨끗하게 해야지 이렇게 정리해서 되겠냐 그러지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지요.

김중성: 해직 되실 때도 사서교사로 계시다가 해직되신 거죠? 그 당시에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정해숙: 그렇죠 사서교사로 있으면서 수학을 가르치다가 해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복직할 때도 사서교사로 복직한 거죠. 제가 전라남도에서는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자격증을 받은 사서교사로서는 1호예요. 전라남도에도 처음에는 큰 고등학교에만 사서교사가 있었는데 우리들이 계속 활동을 전개하니까 중학교에도 사서교사를 발령하기 시작했죠. 제가 해직될 때는 중학교에도 거의 다 사서교사 발령을 받았거든요. 신설 중학교까지도 사서교사가 발령 되었어요. 그래서 사서교사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죠.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에도 발령을 받도록 하자고 했는데, 10년 사이에 이렇게 쇠퇴했어요. 그때는 광주 전남 도서관협회(정식명칭은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임 : 편집자주)도 잘 되었고, 학교도서관 협의회도 잘 되었어요. 제가 해직될 때까지 광주 전남 지구 도서관협회 사무처

장을 맡고 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도서관협회도 그대에 비해서 쇠퇴한 것 같아요. 이번에 광주 전남 도서관협회 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김중성: 이번에 선생님께서 사서교사로 복직이 되신 소식을 접하면서 학교도서관계에서는 힘을 얻기도 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선생님의 역할에 기대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해숙: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긴 하는데, 저는 정년이 얼마 안남았거든요. 이번에 복직할 것도 사실 선생님들 명예 회복 차원에서 한 겁니다. 정년이 2년 밖에 안남았긴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사서교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어요. (대답이 이루어진 이후 교원 정년 단축에 따라 1999년 8월로 정년이 앞당겨졌음. :편집자주) 더구나 제가 지금 간 학교가 규모가 굉장히 큰 학교예요. 예산 규모가 웬만한 교육청 보다 더 많은 학교인데, 복직을 해 보니까 자료가 너무 엉망이고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도서관이 이렇게 내팽개쳐져 있구나 하고 느꼈죠.

김중성: 그동안 전교조에서는 학교도서관과 관련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전교조의 존립과 같은 일차적인 과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정해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서관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체,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우선이었죠. 예를 들면 나뭇가지가 병들어 갈 때 그건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허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말하자면 교육의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는 것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큰 틀만 이야기 하고 그런 부분적인 것까지는 별로 언급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과별로 참교육 실천사례 보고를 하기도 했지만 도서관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언급하고 할 계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해결되면 도서관도 함께 따라서 잘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문제, 정책 문제만 계속 지적하고 했지요.

김종성: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교육개혁의 바람 속에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기능이 정상화 된다면 공교육 정상화 운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해숙: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서교사들이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어떤 행사건 학교의 어느 분야건 사서교사들이 다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서교사가 책임을 느끼고 자기가 맡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만 한다면 얼마든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교사로서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교사들이 잘 수용을 하지 않는 면도 많이 있어요. 가령 사서교사가 일반 교사에게 이러 이리한 자료가 있다고 제공해 주면 이런거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거든요. 오로지 학교 성적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간에 손해를 보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루 빨리 올바른 철학을 갖지 않고서는 사서교사의 역할도 힘들고 교사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김종성: 지금 여러 가지 교육 개혁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때로는 근본적인 교육의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

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도하는 교육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해숙: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현재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전문성이 없다는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교육부 장관이 전문성이 없어서 문제가 심각해졌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대학 총장, 대학 교수들이 다 해 왔지만 교육은 엉망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장관이 전문성은 좀 약하다 하더라도 개혁 의지는 분명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의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교육부 장관 했을 때 보다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결과가 없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건 너무 성급한 평가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올바른 개혁을 이룩하기까지는 아득한 겁니다. 얼마나 궤도에서 어긋났는데, 다시 본궤도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평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성: 최근 교육정보화가 교육 개혁의 한 방편으로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보화의 방향도 잘못 되어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교육정보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체들을 보면 기업이나 언론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너무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그 테크놀로지가 초래하는 교육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면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교육정보화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해숙: 그렇죠. 투자만 많이 되고 올바른 가

치관의 부분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거죠. 어찌 됐든 이제 첨단 과학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활용을 통한 교단 선진화를 많이 주장하게 되죠. 교단 선진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해서 기자재를 구비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교사의 인권이나 학생들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죠. 그냥 돈을 많이 투입해서 기자재를 사고 전시효과를 내는 겁니다. 교육과 학교의 의미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반 위에 얹어 놓고 그냥 전시효과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교육정보화가 정말 올바른 정보화인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깨끗한 영혼으로 성숙시키는데 장애 요인만 만들어 가는게 교육정보화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YS 정권때 전국 교육감 회의를 삼성 연수원에서 했어요. 삼성 연수원에서 한다는 것은 경제 논리를 교육 현장에 심어 주자는 거지요. 경제 논리라는 것은 먹히느냐 먹느냐 하는 건데, 먹히지 않으려면 계속 남을 이겨야 하는 거잖아요. 소위 교육감이라고 하는 지역 교육의 총책임자 회의를 재벌 그룹의 연수원에서 한다는 것은 교육에 경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무슨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95년 무렵에 세계화를 굉장히 강조 했잖아요. 세계 일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 남을 수 없다. 이게 정부의 철학이었습시다. 그때 우리는 그걸 굉장히 비판했죠. 일류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일등주의를 그대로 국민에게 심어주자는 건데, 그럼 이등, 꼴등은 뭐냐. 올바른 세계화라는 것은 다양한 민족과 국가가 서로 공생 공존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류가 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는 것이 세계화냐, 남을 죽이고서라고 일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나 하고 비판했죠.

김종성: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교육 문제나 학교도서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을 계속 던져 가면서 방향을 잡고 입장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숙: 그럼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도서관에 컴퓨터를 넣고, 인터넷을 설치하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그것을 하는가 생각을 해야지요. 교육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알맹이 없는 투자, 전시효과적인 투자가 되고 있어요.

김종성: 한 10여년 동안 학교 떠나 계시면서 마음 고생도 많으시고 몸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10년이란 세월이 선생님 인생에서는 참 힘든 세월이었을 것 같은데요.

정해숙: 나이 든 우리 보다는 젊은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1994년에 전교조 탈퇴서를 쓰는 조건으로 천 삼백명 정도 복직을 시켰어요. 복직하기 전에 젊은 선생님들한테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해직 당해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도 희생시키는 가운데서도 참교육 실현을 위해서 주머니에 토크 몇 개 넣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인간이라는게 꼭 빵을 먹어야만 사는게 아니구나, 꿈을 먹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젊은 선생님들이 뛰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실감을 했어요. 그동안 고생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성: 전교조가 출범할 당시와 지금은 여러 가지 교육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 문제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시민 운동 단체들도 많이 늘어났구요. 그렇게 본다면 전교조가 우리 교육 현장 문제 해결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 학교장을 비롯해서 교육 관료들은 전 교조 덕을 많이 봤다고 솔직히 이야기 합니다. 복직을 해서 보니까 외적인 것은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교육의 질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후퇴한 것 같아요. 이제 막바지가 된 것 같아요. 애들이 저렇게 폭력화 되어 버렸고, 저건 어른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애들을 나무랄 수 없어요. 애들은 어른들 하는 대로 하니깐 애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죠. 어른들이 지금이라도 잘하면 애들은 따라서 잘 합니다. 우리 나라는 균형 있는 사회가 아니죠. 균형을 잃고 발전해 왔잖아요. 인적 구성만 보더라도 어른 중심 사회지 노인이나 어린이는 마치 식민지에 살고 있는 식민지 국민들처럼 어른들 눈치만 보게 되지요. 그래서 노인 문제나 어린이 문제 전혀 대책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국방비 절감하고 교육에 투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어린이 문제 때문입니다. 어린이 교육을 이렇게 팽개치고 사는 나라도 드물죠. 1995년에 전교조에서 유치원 교육을 1년 공교육화 해 달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어요. 어린이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파출부한테 맡기든지 동네 아줌마한테 맡기든지 상관 없다는 겁니다. 박씨 성을 가진 애기든 정씨 성을 가진 애기든 그 애들은 모두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들이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박씨집 애기, 정씨집 애기, 이렇게 해 버리고 대책이 전혀 없어요.

김종성: 지금은 공식적으로 사서교사의 직함으로 현장에 계시는데 요즘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전교조 일에 지금도 많이 관여하고 계시는지요?

정해숙: 위원장 그만 두고 좀 쉬었어요. 그전

에는 위원장 임기가 1년이었는데 제가 할 때부터 임기가 2년이었어요. 그래서 5대, 6대 위원장을 했어도 4년을 했습니다. 내 앞에 위원장 두 분은 1년씩 했는데 저는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좀 쉬었어요. 이제 복직을 했기 때문에 책임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학교도서관 일을 잘 해야죠.

김종성: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는 사서교사가 서른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힘을 모아서 학교도서관이 살아나도록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서교사로 복직하셔서 학교도서관 운동과 관련해서 운동 전략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은 없으신지요?

정해숙: 광주 지역에만 스무 명 정도의 사서교사가 계시지요. 정부에서도 정보화 시대에 즈음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학교도서관이 정보자료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죠. 십 년 만에 복직을 하니깐 축하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3주 동안은 아무 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도서관이 굉장히 쇠퇴했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젊은 사서교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잘 나가야 되겠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구체적인 방향을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성: 제가 알기로는 광주 전남 지역에 계시는 사서교사들의 연령이 대체로 높으신 걸로 압니다. 그 분들이 정년 퇴임을 한 뒤에도 그 자리를 젊은 사서교사들로 채울 수 있어야 학교도서관이 더 퇴보하지 않을텐데요. 그게 무척 염려스럽습니다.

정해숙: 그렇죠. 저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학교도서관에 전담자가 없으면 자료

센터로서 활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담자가 있어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만이라도 그 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광주 지역 사서교사 모임이 있어 가 보았더니 많이 쇠퇴했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광주 시내 학교도서관을 돌아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도서관도 보고, 과거에 좋았던 도서관이 현재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보고, 교장들도 만나고 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뭘 제대로 할려면 실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나도 옛날하고 달라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잘해서 인정을 받고 주위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최선의 길이지요. 저도 2년 남았는데 하는데까지는 해야지요.

김종성: 과거 학교도서관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사서교사 강습이 다양하게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습을 받고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아직도 학교 현장에 많이 남아 계신 걸로 압니다. 학교도서관을 교육 현장에 널리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강습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 그렇죠.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주최해서 강습회를 하다가 나중에는 지역으로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도 1980년대 중반까지 사서교사 자격 강습을 여러번 했어요. 저도 거기에 여러번 강사로 나가기도 했죠. 사서교사 강습에도 강사로 나갔고, 일반교사 강습에도 강사로 나갔어요. 도서관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강습이 필요해요. 설사 티오(T/O)가 없

어서 발령을 못낼 망정 교사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강습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교육부 주최로 중앙에서 못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교사 자격 연수 할 때,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진급하는 자격 연수 할 때, 교장 교감 연수 할 때 도서관 과목이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도서관협회에서도 교육부를 상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김종성: 지금 학교도서관에 애정을 가지고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힘을 쏟는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 마디 해 주시죠.

정해숙: 아무래도 우리는 옛날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장에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동안 공백도 많았으니까. 도서관이 많이 쇠퇴하긴 했어도 새로 또 만들어 봐야죠. 젊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잘 해봐야죠. 참교육에 대한 신념과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취될 수 있을 겁니다. 학교도서관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도 학교도서관 안 알아 줍니다.

김종성: 선생님 오늘 오랜 시간동안 좋은 말씀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셔서 학교도서관을 아끼고 교육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숙: 예, 감사합니다.